

스윙승 뒤 스윙패... KIA, 쓰디쓴 주말

NC전 3-7 패배... 홈 3연전 완패
1회 선취점 냈지만 후속타 불발
멧텐, 3이닝 넘어서자 공략 당해
5이닝 7피안타 4실점
필승조 내고도 추가 실점



‘호랑이 군단’이 타선의 역발
자 속 3연승 뒤 3연패로 제자리
결음을 했다.

KIA 타이거즈가 1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3-7 역전패를 기
록했다.

9-10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회 선취점은 냈
지만, 폭발력이 부족했다.

1회말 톱타자 최원준이 우측 3루타로 포문을 열
었다. 김선빈의 좌전안타가 이어지면서 KIA가 선
취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터커-최형우-이창진
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의 방망이가 불발되면
서 단 1득점에 그쳤다.

기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KIA는
‘홈런 1위’ NC와의 힘싸움에서 밀렸다.

3회 이날 첫 삼자범퇴를 만들었던 멧텐이 4회 및
달아 직구를 공략당했다.

1사에서 양의지를 우전 안타로 내보낸 멧텐이 알
테어에게 볼 3개를 연달아 던졌다. 4구째 스트라이
크가 들어갔지만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던진 144km
직구가 가운데 몰렸다. 알테어의 방망이를 떠난 공
은 그대로 좌중간 담장을 넘어갔다.

1-2가 됐고, NC의 공격은 계속됐다.

홈런 뒤 멧텐이 노진혁을 좌전안타로 내보냈다.
강진성의 유격수 땅볼 때 선행주자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김태근과의 승부에서 다시 한방을 얻
어맞았다.

1볼 1스트라이크에서 던진 143km 직구가 좌측



패배에 빛 잃은 호수비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KIA 좌익수 이우성이 1회 초 2사 1루 NC 4번 양의지의 장타성 타구를 호수비로 잡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담장을 넘어가면서 점수는 1-4까지 벌어졌다.

멧텐은 5회에도 선두타자 박민우에게 내야안타
를 맞으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포수 한승택이 도
루를 저지해줬고, 이명기와 나성범을 각각 좌익수
플라이와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KBO리그 두
번째 등판을 5이닝 7피안타(2피홈런) 2탈삼진 4실
점으로 마무리했다.

5회말 KIA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후속타 불발이 아쉬웠다.

선두타자 한승택의 중전안타와 박찬호의 좌중간
3루타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KIA가 대량 득점의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최원준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김
선빈의 유격수 땅볼이 나왔다. 김선빈의 땅볼 때 3
루에 있던 박찬호에 홈이 들어왔지만 터커의 중견
수 플라이로 2득점으로 KIA의 공격이 끝났다.

3-4, 1점의 승부가 이어지던 7회초 수비에서 승
부가 갈렸다.

박준표에 이어 이준영이 7회 마운드에 올랐다.
선두타자 도태훈을 볼넷으로 내보낸 이준영이 박민
우의 희생번트와 이명기의 1루수 땅볼로 2사 3루에
몰렸다. 이어 나성범과의 승부. 힘이 실리지 않은
타구가 외야로 향했다.

중견수 이창진이 달려왔지만, 공은 글러브 맞고
떨어지면서 1타점 2루타가 됐다.

KIA가 이승재로 볼펜을 교체해 힘으로 승부에
나섰다. 그러나 양의지의 타구가 좌측선상에 떨어

지면서 다시 실점이 올라갔다.

팽팽한 흐름이 깨진 뒤 KIA의 세 차례 공격도 모
두 무위로 끝났다.

3-7로 뒤진 9회말 나주환이 선두타자 안타로 마
지막 불씨를 살렸지만 대타 류지혁의 삼진이 나왔
다. 대타 김민식이 우전 안타로 NC를 긴장시켰지
만, 박찬호의 땅볼 뒤 최원준의 헛스윙 삼진이 나오
면서 경기는 그대로 KIA의 패배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루키들 ‘잊지 못할 데뷔’

KIA 이승재·이의리·장민기 “재미있었다” 소감



이승재

이의리

장민기

KIA 타이거즈의 팬들을 웃게 한 루키들이 ‘재
미있었다’며 프로에서의 첫 1주일을 이야기했다.

KIA는 이승재, 이의리, 장민기 등 세 명의 투수
루키를 앞세워 2021 시즌을 열었다. 캠프에서부터
각각 다른 개성으로 어필을 한 세 사람은 주중 키
움전에서 눈길 끄는 데뷔전을 치렀다.

이승재는 지난 7일 프로 데뷔전에서 3이닝 퍼펙
트와 함께 승리투수가 됐고, 이의리는 8일 선발로
첫선을 보여 5.2이닝 2실점의 인상적인 피칭을 선
보였다. 장민기도 이의리의 추가 실점을 막아주면
서 8일 잊지 못할 데뷔전을 치렀다.

이승재는 “재미있었다. 피곤한 것 같기도 한데
재미있었다”며 프로에서의 첫 주를 돌아봤다. 이어
“처음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는 많이 긴장도 했
는데 올라가니까 괜찮았다. 마운드가 멀리 보이기
는 했다”며 “바로 첫 승을 해서 너무 좋았다. 계속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장민기는 타석에 있는 타자들을 보면서 프로를
실감했다.

장민기는 “타자들이 TV에서 보던 사람들이었
다. 상대하면서 멋있다는 생각을 했다(웃음)”며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는 긴장이 안 됐는데 볼펜
에서 팔을 풀 때는 긴장해서 숨도 안 쉬어졌다”고
프로에서의 첫날을 떠올렸다.

긴장된 순간을 넘긴 뒤에는 마운드가 익숙해졌
다.

장민기는 “두 번째 이닝부터는 고등학교 때 시
합하는 느낌이었다. 고등학교 때도 주자가 깔린
상황에서 많이 올라갔다”며 “경기에 많이 나가고
싶다”고 웃었다.

사람들의 이목을 한눈에 집중시키며 화려하게
KBO리그에 등장한 이의리에게는 생각보다는 무
덤덤한 첫 경기였다.

이의리는 “재미있었다. 긴장을 별로 안했다”며
“팬들의 환호성을 들을 때 프로 무대라는 게 실감
났다”고 데뷔전을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
는 경우가 많았던 이의리는 프로에서의 첫 등판에
서도 선두타자 볼넷을 허용했다. 그 부분이 아쉬
운 이의리는 다음 등판에서는 ‘타이밍’에도 신경
쓸 생각이다.

이의리는 “첫 타자 승부는 숙제다. 첫 등판에서
는 던지는 타이밍이 빨라서 높은 공이 많았다. 다
음에는 차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의리는 5회 2사에서 키움을 대표하는 타
자 박병호에게 투런포를 맞았다. 이의리에게는 좋
은 경험이 됐다.

이의리는 “그 상황에서 돌아간다면 체인지업을
던지겠다. 첫 타석부터 직구 타이밍이었는데 초반
에는 내 직구에 힘이 있었다. 힘이 떨어지니까 맞
더라”면서 “인코스 직구 빼고 다 던져야 했다. 그
래도 지나갔으니까 괜찮다”고 웃었다.

앞으로 다가올 롯데 김진욱과의 맞대결에 대해
서는 “형들을 믿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올 시즌 KBO리그의 ‘특급 신인’으로 꼽히는 이
의리와 김진욱이 로테이션 상으로는 15일 챔피언
스필드 마운드에서 격돌할 예정이다.

이의리는 “형들이 잘 쳐주면 이길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하던 대로 내 공을 던지겠다”고 각오
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역습에 무너진 수비... 광주, 연습 ‘제동’



성남에 0-2 패배... 물리치에 연속골 허용 ‘K리그’ 전남 알렉스 극장골... 안산에 1-0 승

광주FC의 3연승 도전이 성남
물리치의 스피드에 막혔다.

광주가 지난 1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
남FC와의 K리그1 2021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
-2패를 기록했다.

안방에서 인천, 수원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광주는 기세를 이어 3연승을 노렸지만 물리치에게
멀티골을 내주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앞선 수원FC전에서 시즌 첫 무실점을 장식했던
광주 수비가 전반 14분 만에 뚫렸다.

중원에서 골을 잡은 물리치가 알렉스를 따돌리고
빠른 속도로 광주 진영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오
른발로 때린 슈팅이 골대 맞고 굴절되면서 광주 골
망을 흔들었다.

후반 9분에도 물리치가 광주를 울렸다.
이번에도 중원에서부터 물리치의 질주가 시작됐

다. 알렉스가 물리치를 막기 위해 역주를 펼쳤지만
물리치의 발이 빨랐다.

그대로 광주 골키퍼 윤보상 앞까지 달려간 물리
치가 오른발로 빈 틈을 파고들면서 2-0을 만들었
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멀티골의 기쁨에 취한 물리치가 ‘상의 탈의’ 세리
머니를 펼쳤다. 기쁨은 잠시. 물리치는 전반전에 받
을 높게 들어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
리고 상의 탈의 세리머니와 함께 다시 옐로카드가
나오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 조치가 됐다.

성남 입장에서는 황당한 골 세리머니, 광주에는
수적 우위를 점할 좋은 기회였지만 아쉽게 결과는
바꾸지 못했다.

후반 28분 문전 경합 상황에서 펠리페가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성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수

팅에 앞서 진행됐던 광주 공격 상황에 대한 오프사
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펠리페의 골이 인정되지 않
았다.

이후 몇 차례 광주의 공격이 무위로 끝나면서 광
주의 3연승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한편 앞선 5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패를 기록했던 전남은 안산 원정에서 시즌 2승에
성공했다.

전남은 1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그
리너스와의 K리그2 2021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알렉스의 골로 1-0 승리를 거
뒀다.

0-0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김현욱이 페널티 박
스 오른쪽으로 침투한 뒤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던
알렉스에게 백패스를 했다. 공을 잡은 알렉스가 왼
발 슈팅으로 골대를 갈랐다. 이어 경기 종료를 알리
는 휘슬이 울리면서 알렉스는 ‘극장골’ 주인공이 됐
다. 또 알렉스는 K리그 5경기 만에 마수결이 골을
터트리면서 전남의 고민 많은 화력에 힘을 실어주
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